

최근 금융개방 조치의 내용과 내년도 금융개혁 방향

1. 개요

□ 중국이 지난 12월 11일 WTO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이 날부터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음.

- 첫째, 외자금융기관의 외환서비스 대상에 대한 제한이 취소됨.
 - o 외자금융기관 외환 업무의 서비스 대상이 중국 영토내 모든 집단과 개인으로 확대됨. 단, 영업 자금 및 자본금을 관련 규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금융업무 영업 허가증 혹은 금융업무 법인 허가증을 갱신해야 함.
- 둘째, 上海, 深圳의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인민폐업무 정식 취급을 승인하고 天津, 大連의 외자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민폐업무 취급을 위한 신청을 허용함.
- 셋째, 외자 비은행금융기관은 인민은행의 조례에 의거, 독자 혹은 합자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를 설립, 영업을 할 수 있음.
- 넷째, 외국투자자는 인민은행에서 공포한 <금융임대회사 관리방법>의 규정에 따라 독자 혹은 합자 금융회사를 설립해 할부금융서비스 제공 가능

□ WTO 가입에 따른 금융 개방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후 중국의 금융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.

- 특히 ▲국유은행의 주식제 개혁 및 주식시장 상장, ▲자본시장 자유화, ▲하이테크 산업화를 위한 금융지원, ▲투자은행의 재도약 추진, ▲금융시장 체제 정

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.

2. 내년도 금융개혁 방향

□ WTO 가입 이후 외국계 은행에 자금, 우수 고객 및 인재를 빼앗길 우려가 있는바, 국유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제 개혁 및 주식시장 상장이 필요함.

- 외국은행에 비해 국유은행이 취약한 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▲현행의 평균주의적인 급여체제는 우수인재 유치에 불리하고, ▲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분장이 미흡하며, ▲은행 고유영역에 대한 행정간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임
- 최근 중소 상업은행들은 주식제 개조 실행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, 국유은행의 주식제 개조 및 상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.
 - 첫째, 법인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바, 정부지배 국유은행으로부터 주주의 구성원이 다양화된 주식제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음.
 - 둘째, 상장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함.
 - 셋째, 스톡옵션 등 우수인재 유치에 유리한 시스템을 조성함.

□ 중국의 자본시장은 WTO 가입이후 더욱 규범화, 자유화, 개방화되어야 함.

- 현재 중국의 증권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 아닐 뿐더러 거품이 많은 등 적지않은 한계를 갖고 있음.
- 첫째, 유통이 자유롭지 못함. 전체 상장 주식의 1/3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, 2/3는 국유주로 유통이 자유롭지 못함. 이로 인해 주가가 과대평가 되어 있으며, A주와 B주 및 해외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주가 격차가 더욱 벌어짐.
- 둘째, 국유 법인주식의 유통 금지는 민간 자본의 무리한 자금 운영을 자극하는 동시에 주가 조작, 파잉투자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.
- 셋째, 주식 선물시장 역시 개방되지 않았는데, 이는 리스크 분산, 기업의 미래

가치 평가, 개방형 펀드 운용 등 주식시장의 순기능 발전을 제한하고 있음.

-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규범화, 자유화 개혁을 추진해야 중국 주식시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음.
- o 특히 국유 법인주의 유통이 절실한데, 이는 ▲사회보장기금 충당, ▲소유제 구조개선, ▲국유자본의 점진적 퇴출 및 민간자본 유입 추진, ▲주식시장의 개방 가속화 등에 유리하기 때문임.
- o 국유 법인주식의 유통 이전 단계로서 경영진 및 직원에게 스톡옵션 또는 ‘우리 사주’ 형식으로 불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, 차스닥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심천에 국유 법인주 전문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.
- 그 외 ▲차스닥 개설, ▲주식 선물시장 설치, ▲시장 시스템 완비, ▲거래의 규범화, ▲관리 감독 강화 등 선진국형 주식시장 체제도 필요함.

□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이테크 산업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바, 규제완화를 통해 중국 금융산업이 외국계 은행, 투신, 벤처캐피탈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.

-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부족은 하이테크 산업 전문 투자 금융시스템 문제 때문이지 투자상품(상용화 기술개발), 적정 금융수단 부재 때문은 아님.
- o 따라서 하이테크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기업, 창업투자금융, 투자담보회사, 차스닥 시장 등이 결합된 독립적인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.
-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발전은 적지 않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, ▲신기술, 신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정책 부재, ▲《투자기금법》등 관련 법률 미비 및 시행세칙 제정 지연 등 중국정부의 개혁 노력 부족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
- o 또한 차스닥 시장 개설 및 창업투자기금 개방은 벤처 자금의 하이테크 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과잉투자 및 거래소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음.

□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결여한 중국의 투자은행은 외국계 투자은행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- 현재 중국은 증권회사가 기업 상장시 필요한 보증 등 증권 업무 외에도 채권의 매매, 기업 합병 등 투자은행의 일부 업무를 대행,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,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증권회사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.

○ 중국의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▲국유자본 지배 축소, ▲우수 인재의 유치, ▲관료주의와 평균주의 배격 등 중국 실정에 맞는 개혁 추진이 필요함.

□ WTO 가입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통일적인 금융시장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.

-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중국인민은행, 증권감독위원회, 보험감독위원회 등 세 군데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, 기업의 채권 발행, 외자 이용 등은 국가계획발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, 이는 금융산업의 업무 관리와 일관성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○ 각종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개방과 발전을 위해, 특히 기업 채권 발행의 심사 기준, 지방채권시장의 개방, 산업투자기금 및 투자기금의 설립, 비준 등 각종 금융업무의 통일 관리를 위해 기구 통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□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되고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.

-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개방조치 이외에 2년 후에는 외자은행의 중국 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 업무를 허용해야 하며, 5년뒤에는 개인에 대한 인민폐 영업을 허용해야 함.

- 따라서 그동안 점진적으로 시범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금융개혁이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計劃委, 내년도 경제성장에 유리한 요인 지적

- 금년도 GDP 성장률은 당초 기대보다 높은 7.4%로 예상되며, 고정자산투자를 비롯한 내수부문이 성장의 주요 엔진이 되었다고 王春正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이 “중국투자포럼”에서 밝힘.
- 왕 부주임은 내년도 경제성장의 유리한 요인으로 다음을 언급함.
 - ① SOC 건설, 기술개혁, 환경보호에 사용할 일정 규모의 장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 확대
 - ② 기 건설중인 SOC 사업과 기술혁신 프로젝트 중 일부는 내년 말까지 준공, 가동
 - ③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적인 법규 및 규정의 마련으로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 조성
 - ④ 금융기관의 대출시스템 개혁으로 금융기관의 자주권 확대
 - ⑤ 지역별 부문별로 민간투자와 중소기업 장려책 마련
 - ⑥ WTO 가입에 따른 투자 및 무역환경 개선 (經濟日報, 2001. 12. 8)

2. 周小川 중감위 주석, 자본시장의 서비스 개선 강조

- 周小川 중국중감위 주석이 중국투자포럼에서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서비스 향상과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- 周주석은 또한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 요인으로 다음을 지적함.
 - ① 자금 공급의 측면에서 중국의 저축률은 GDP의 35%~40%에 달하는바 이러한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다원화가 요구됨.
 - ②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주식투자와 채권투자의 수요가 큼.
 - ③ 민간 저축이 상업은행에만 집중되어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경로의 다원화가 필요함. (工商時報, 2001. 12. 10)

3. WTO 가입과 동시에 시장개방 약속 이행

- 12월 11일 중국의 WTO 정식 가입과 관련, 금융, 보험, 소매 서비스, 통신, 건축, 여행을 비롯한 분야에 관한 약속이 시행됨.
- 금융업에 있어서 인민은행은 외환업무 서비스 대상, 인민폐 업무 경영, 자동차 금융서비스, 금융 임차 서비스 등을 공개함.(12월8일 경제뉴스 참조)
- 보험업에 대해서는 영업면허, 외자나 합자 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제한에 대해 공포한 바 있음.
 - 영업면허 발급에 대한 수량 제한을 폐지함.
 -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지사나 합자회사 설립 허용, 합자회사에 외자 지분 보유율 51%까지 가능
 -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합자회사 설립 허용, 외자 지분보유율 50% 이내로 제한
 - 합자기업 투자 양측은 감량공제표의 약속 범위 내 합자 조항을 독자 작성
 - 합자보험대리회사의 외자 지분보유율 50%까지 가능
 -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上海, 廣州, 大連, 심천, 佛山에 서비스 제공 가능(經濟日報, 2001. 12. 11)

4. 내년도 국유기업 개혁의 4대 주안점

- 2002년도 국유기업 개혁은 여전히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이라고 李榮融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이 전국경제무역회의에서 지적함.
- 첫째,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과 기업 그룹을 적극 육성
 - 국유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, 분배제도를 개혁함.
- 둘째, 규범화된 현대기업제도 구축을 가속화
 - 주식제 개혁을 통해 회사법인관리구조를 갖추고, 외부 이사 및 독립 이사 제도 도입
- 셋째, 부실기업의 퇴출 지속

- 국유기업이 악성채무를 일정기간(연해지역은 2년, 기타지역은 3~4년) 변제하지 못할 경우 파산법에 따라 퇴출시킴.

- 넷째, 기업 관리의 강화 및 개선

- 인사, 노동, 분배 제도의 개혁을 통해 능력에 의한 채용과 급여 제도 확립
(經濟日報, 2001. 12. 11)